

친숙한 대피교육

아이디어부문(고등부)

우수상 백승우

1. 재난의 위험성 최소화

①지진 대처법을 화장실 소변기 위쪽 벽면이나 변기 칸 안쪽 문에 붙여두어 자주 노출시키기.

일본의 지진 대처법

지진 직후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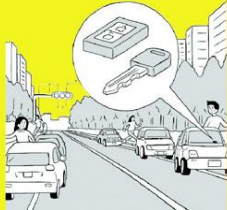
지진으로 흔들리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책상 밑에 숨어 안전 확보하는 게 최우선



지하철 가방 등으로 머리 보호하고, 자세 최대한 낮춤



백화점 수퍼마켓 진열대에서 상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둥·벽 쪽으로 몸을 붙인 채 이동



자동차 운전 중 응급차량 통행 위해 정차, 열쇠 꽂아둔 채 하차(다른 대피자가 긴급시 차 이용)

지진 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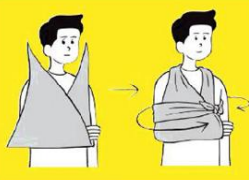
라디오·텔레비전 뉴스로 상황 파악



피난소 대피 대피 전 다른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이동할 피난소 위치 적은 종이를 집 문에 붙임



이웃의 안전 확인 부상자 있으면 주변에 도움 요청.



부상시 주변 물건으로 응급조치 베타이로 지혈, 편의점 비닐 봉지로 김스(봉지로 다친 팔을 목에 걸고 고정)



지진 후 **3시간**
지진(혹은 쓰나미) 경보 여부에 따라 2차 피난소로 이동 혹은 귀가

지진 후 **3일**(피난소 생활)
1주일치 식수·식량 확보, 규칙 준수(식량 할당량 지키고, 애완동물은 별도 장소에 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전기 스위치 만지지 않는다
화재 폭발 위험



혼자 구조 활동하지 않는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맨발로 다니지 않는다
유리 파편에 부상 위험

피난소에 대피 시

1차 임시 피난소는 동네 작은 공원·놀이터.
2차 피난소는 학교 체육관, 각 동네 주요 길목·놀이터·공원 등에 피난소 위치 표시한 지도를 게시판 형태로 설치, 서점에서 지도 판매.
'피난소까지 5분 거리=보통 사람 걸음으로 400m' 등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줌

171 전연(傳言) 다이얼'로 가족에게 생사 전함

휴대폰이 불통될 경우 공중전화 등 유선으로 자신 상태를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
'171'에 전화해 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 지금 ○○공원에 있다"고 말하면 이 음성 이 녹음됨. 녹음된 메시지를 가족이 듣고 행방 파악. 녹음 시간은 30초, 녹음 파일은 48시간까지 보관.

지진 대비 필수품 준비 요령

(4인, 1주일치 기준)
식수
1인당 하루 2L(성인 남성 하루 필요 섭취량) × 4명 × 7일=생수 약 30병(6병 묶음 상자 5개)
두루마리 휴지
1인당 하루 휴지 사용 횟수 5회 × 4명 × 7일 =약 6.5롤

자료: 일본 도쿄 지진 대응 매뉴얼 '도쿄방재(東京防災)', '지진이츠모매뉴얼'



② 1년에 1번씩 날짜를 정하여 오후 수업시간에 교과수업 대신 학교방송으로 재난 영화를 틀어주어 흥미롭게 대피방법을 교육.



'대지진'중



'해운대'중



영화가 끝나면 주요 대피 장면들만 다시 간략히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설명함.

2. 흥미로운 교육방법

학교 축제 등에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재난 리무진'이라는 콘텐츠를 부스로 운영한다. (단, 같은 자치구내에서 '재난 리무진' 부스운영 날짜는 겹치지 않게 한다.)



'재난 리무진'에서는 대형 리무진의 내부에서 각종 재난 콘텐츠의 가상현실 게임이나 재난관련 퀴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게임 점수가 높거나 퀴즈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화재 대피 VR



지진 대피 VR

3. 기대효과

학생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가 재난발생 원인이나 재난대피 방법 및 순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퀴즈를 통해 자신이 재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몰랐던 다양한 재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한다.